

현장시선



서상기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농업의 미래 뉴노멀로 대비하자

뚝 증가에 따른 농업용수의 공급량 부족 현상은 농업활동 중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지금까지 농업용수 공급 시스템과 차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뉴노멀의 수립은 필수적이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논과 밭 면적은 각각 27%와 4% 감소한 반면, 연중 작물재배가 가능한 시설농업 재배면적은 205% 급증했다. 시설농업 재배면적의 급속한 확대는 1차산업의 확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농산물의 상품성 유지를 위한 청정 지하수 수요량의 급격한 증가라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직면하게 됐다. 시설농업은 온도, 습도, 용수 공급량 등 환경 요인을 조절한 작물 재배가 가능하므로, 농업용수 소비량 조절과 함께 농산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신개념의 농업방식이다. 예로서 소비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접목하는 경우, 기후위기가 가속화될 수 있는 등

지역적인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한 미래 농업용 지하수 공급 가능량을 예측한 결과, 2025년 이후 서부지역에서 지하수 공급 가능량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뉴노멀을 이용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다행히 제주자치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적정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중요한 목적은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으로 공급 불균형 해소와 함께 통합 물관리를 통한 수자원 보호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설치된 개별 공공관정의 사용을 억제하는 대신 대체수자원과 함께 광역관정을 이용한 체계적인 농업용수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미래 제주도의 농업용수 수요량 대비 지하수 공급 가능량의 시·공간적인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그린뉴딜 기술이 접목된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는 이제까지의 기후변화 적응방안 수립과 같은 소극적인 관리가 아닌 제어가 불가능한 단계로 악화되고 있다. 기후위기와 함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뭄은 농업의 미래를 대비한 새로운 기준 수립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이른바 뉴노멀이다. 이는 2015년 중국 경제가 이전의 10% 이상의 고속 경제성장률을 6% 수준의 중속속 성장의 새로운 상태로 전환 시 사용하던 용어(뉴노멀, 신장타이, 新常态)로 이제 급격한 기후위기 상황에 적용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가

열린마당

여름철 챙겨야 할 필수품 '안전수칙'



김세민 동부소방서 조천119센터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가야 한다. 과식이나 음주 후 수영은 남녀노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며, 물놀이 전 인근 119센터나 119시민 수상구조대를 통해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방법을 배우고, 보호자는 물놀이 주의사항을 숙지해 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 특히, 아이들의 인명피해는 대부분 어른들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때는 항상 예의주시해야 하며,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조천119센터는 물놀이 사고 위험지역의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을 정비·점검하는 등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평상시 부단한 훈련을 하며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신 스스로가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여름철 피서지에서 물놀이 사고로 소중한 사람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없길 기대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길 바란다.

여름철엔 가족과 함께 해수욕장, 계곡 등으로 휴가를 떠난다. 어느 때보다 즐거워야 할 여름휴가가 물놀이 사고로 이어지며 함께 온 일행이 목숨을 잃는 등 안타까운 일이 빈번히 일어난다. 여름철 수난사고의 대부분은 천재지변이 아니므로 우리가 스스로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도록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물놀이 대표적인 안전수칙으로는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준비운동을 해야 하며,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뉴스-in

"향응 피감기관·검사국 모두 문제"

탄소중립 정책 제주가 선도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한민국 탄소중립 정책을 제주가 선도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

원 지사는 지난 16일 열린 전국 대학교학생회장협의회 하계세미나에 참석해 신재생 에너지 및 스마트 그리드 정책, 전기차 보급률 및 충전 인프라 등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언급.

이어 "제주의 분산형 신재생 에너지 체계는 전 세계의 2000여개의 섬, 군사기지에 적용할 수 있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제주도 하면 탄소중립이 데 가장 앞장 서 있다고 생각해달라"고 주문. 고대모지자

한림농협 향응 제공 특감 예정

○...한림농협이 지난달 5일간 진행된 정기감사 기간에 농협경기지역본부 감사국 직원들에게 여러차례 식사 대접 등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이는 가운데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가 다음주 한림농협을 찾아 특별감사에 나설 예정.

특별감사는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에 밝힌 감사국 직원에 대한 향응 제공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 농협 안팎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에다 수 차례 향응을 제공한 피감기관이나 경기농협사국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 문미숙기자

우편 발급 민원 요금 면제

○...제주도교육청이 홈에듀민원서비스를 통해 신청한 우편 발급 민원에 대해 기존 민원인이 부담하던 우편요금을 면제하기로 결정.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국민생활 각하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된 이같은 내용의 예로·건의사항이 최근 도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제출돼 원안 가결되면서 앞으로 제증명민원 34종은 우편 요금 부담 없이 민원 서류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

이석문 교육감은 "우편 발급 민원 요금 면제 실시가 비대면 민원 발급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 오은지기자

사설

아트플랫폼 의혹, 감사원 감사로 풀리나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추진하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한 논란이 끝이 없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잡음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와 검찰 수사라도 논란이 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이 사업의 중요한 목적은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으로 공급 불균형 해소와 함께 통합 물관리를 통한 수자원 보호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설치된 개별 공공관정의 사용을 억제하는 대신 대체수자원과 함께 광역관정을 이용한 체계적인 농업용수 공급 체계 구축하고 있다. 특히 미래 제주도의 농업용수 수요량 대비 지하수 공급 가능량의 시·공간적인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그린뉴딜 기술이 접목된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원 감사 청구 배경을 밝혔다. 감사 청구 내용은 기본재산 취득·처분 승인관련 절차 및 권한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 감정평가 부실 및 과도한 매매가 계약체결 의혹 해소 부실 등이다. 특히 지방재정법 위반 논란도 새롭게 불거졌다. 문예재단의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은 처음부터 어설피게 추진한 측면이 있다. 건물 매매계약부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됐다. 100억원이 넘는 건물 매매가에 대한 적정성과 계약금 2월에 중도해약금을 20억원으로 설정한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논란을 빚을만 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해소되길 기대한다. 각종 논란을 빚으면서 아트플랫폼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만큼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도민 공감대 속에 진정한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간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천 복개구조물 철거 '차일피일' 안된다

제주시 한천 복개구조물 철거가 집중 호우기 도래에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한천 복개구조물은 과거 두 차례나 엄청난 범람 피해를 내 구조물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업이 확정됐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주민설명회를 못해 세부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었고, 공사도 미뤄지고 있다. 행정의 소극적 태도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를 앞둔 시점에 시민들 안전을 커녕 불안감만 키우는 결과를 자초하고 있다.

한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18년 한천 복개구조물 철거와 생태하천 복원을 골자로 한 한천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2019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여태 폭우 피해에다 2016년 태풍 차바네 복개구간 아스팔트 파손, 차량 30여대 피해 등 잇따른 엄청난 범람피해에 따른 것이다. 작년(국비 50%)을 들여 한천 복개 철거 및 하상정리 1만7800㎡, 교량 재가설 3개소 등을 추진한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주민설명회를 열지 못한데다 기존 주차공간과 도로시설들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주민이해차 조정 등을 결정못해 계속 지연되는 현실이다. 당초 이달까지 실시계획 용역을 마친후 다음달부터 철거공사에 나설 계획이 상당기간 미뤄지는 것이다. 시가 시민들의 생명, 재산보호에 가장 우선한 행정을 펼치는 건 '기분'이다. 사업 시행 과정에 '돌발 변수'에도 아랑곳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시기적으로도 집중호우기를 코앞에 둔 상황에 또다시 범람피해를 일으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가 내세운 주민설명회 지연, 기존 주차공간 등에 대한 주차반복 복개구간 아스팔트 파손, 평소 적극 행정을 펼쳤다면 극복 가능한 사안이다. 뒤로 미룬다고 해결될 행정은 거의 없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고
강성호(마주협회(마주)) 어머니
제주고씨 춘숙(향년 91세)께서 서기
2021년 6월 16일 22시 31분경에 별세
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6월 18일(금요일)
▶발인일시: 2021년 6월 19일(토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빈소
▶장 지: 위미 가족 선영
아들 강성호 며느리 오정일
일호
딸 강을생 사위 구석재
미생
미자 김희현
※ 연락처 : 강성호 010-3697-5434
강일호 010-5721-8204
김희현 010-9458-0580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남평문씨 성아(향년 86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 올립니다.
2021년 6월 18일
남편 진영창
딸 진미숙 사위 고인철
은숙 강창진
금숙 현용재

토지 급매 가격
1) 서귀포 법성 최고 전망(특A+++)
건물허가 완료, 10필지 중 토지 150-220평
단, 8개 남부 ★평당 220만원★
2) 강정동 해안도로 200m 근접
바다 조망, 한라산 조망 최고 건축가능, 아울렛예정지구
부근, 12m 계획도로 진행중, 총 480평 ★평당 130만원★
3) 호근동 별장부지
법성 조망 최고, 서호초 2분, 하나로마트 3분거리
총 681평 ★150만원★
4) 강정동 해안도로
바다조망 한라산조망 최고, 호텔 및 고급 빌라 부사용,
총 2486평 ★190만원★
5) 월평동 해안도로 초근접
바다조망, 한라산 조망 최고, 카페부지 특 A+++
총 1635평 ★85만원★
6) 강정동 해안도로 위 땅
15m 건축 가능, 바다조망 카페용 펜션용,
총 376평 ★240만원★
7) 월평동
바다조망 한라산조망 건축허가 150평, 180평,
380평, ★160만원★
010-6767-4546, 010-6275-5200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을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율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도정소식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6.14.~7.30.)
도내 산업 활동을 하는 사업체(자가소비 생산 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등 제외)
대상으로 인터넷(www.ecensus.go.kr) 또는 조사원이 방문하여 면접조사합니다.
'21년 6월은 제1기본 자동차세 납부의 달
○ 과세기준일: 2021. 6. 1.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
※ 자동차세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1/2씩 부과. 다만, 자동차세(본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1년세액을 부과(하반기금액의 10%할인)
○ 납 기: 2021. 6. 16. ~ 6. 30.
○ 납부 방법
- 금융기관납부: 전국우체국 및 농협, 도내금융기관
- ARS납부(신용카드납부/휴대폰소액결제): 전화번호 1899-0341, 이용시간: 24시간 365일, 유의사항: 휴대폰 소액결제 시 수수료 발생
- 입금전용계좌로 계좌이체: 차량 1대별 1고유계좌 부여
- 인터넷납부: 위탁소(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납부
- 신용카드납부: 제주시청 재산세과, 서귀포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자동차납부: 자동차세 신청자에 대해 납기 마감일 자동 인출
○ 조기납차세 경품추첨
- 추첨대상: 6. 23. 까지 조기 납부자, 연세액 선납자, 자동차세 납부자
- 추첨방법: 지방세프로그램에 의한 컴퓨터 무작위 추첨
- 추첨일시: 2021년 7월 중
- 경 품: 2만원상당 탐나전선
- 추첨인원: 313명(제주시 163명, 서귀포시 150명)
○ 납기경과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씩 60회의 증가산금이 추가되며, 변호관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728-2391-2393), 서귀포시청 세무과(☎760-2331-2335),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